

# 석유화학, 콘덴세이트 도입 경쟁시대

## 저렴한 가격으로 나프타 생산해 ... 국내기업들 미국산 수입 물밑 작업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석유를 대체할 신에너지원으로 콘덴세이트(Condensate)를 주목하고 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Naphtha)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고온·고압 상태의 지하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액체의 초경질유가 된다.

콘덴세이트를 정제하면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고 P-X(Para-Xylene), M-X(Mixed-Xylene) 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전년대비 0.1% 줄어들어 2008년 이후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나프타 소비는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과 비교하면 무려 98.4% 급증해 정유·석유화학 시장에서는 원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원유 수출국들이 있는 중동에서도 콘덴세이트 공급량이 원유를 추월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4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콘덴세이트, NGL(천연가스액) 등 비원유 석유류의 하루 생산량이 전년보다 56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 생산량 증가분 26만배럴의 2배 이상으로, 특히 카타르와 UAE 등에서 콘덴세이트 판매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셰일가스(Shale Gas)와 타이트오일(Tight Oil) 생산으로 원유 자급률이 50%를 돌파해 원유 생산량이 수입량을 웃돌게 된 미국이 원유 수출에 나서면 콘덴세이트 열풍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콘덴세이트 확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SK에너지는 미국산 콘덴세이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중간 단계인 콘덴세이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도 미국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면 2014년 4월 완공을 앞둔 P-X 플랜트의 원료 가격을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으로 현대케미칼을 설립하고 하루 14만배럴의 콘덴세이트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설비 및 M-X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도 미국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원유 도입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해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정제마진이 떨어져 영업실적이 부진한 정유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석유화학부문도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2/26>